



강 훈

'살림지식총서' 기획하는 살림출판사 기획1팀 강훈 팀장

지적토양을 비옥하게,
문고본에서 찾은 한국출판의 자생력

삼성문고(전기, 고전), 문예문고(외국철학, 문학), 서문문고(문학, 사회과학, 에세이), 삼중당문고(문학, 사상, 과학), 현대과학 신서(과학, 기술) 등 197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문고본들이다. 방문판매를 통한 고가의 전집류 출판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한 권에 몇백 원 하던 문고본들은 돈 없는 청소년과 서민들의 도서관 역할을 했다.

한때 한 해에 1,000여 종까지 출간되던 문고본이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한 건 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부터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한 문고본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살림출판사가 지난해 6월 《미국의 좌파와 우파》를 시작으로 살림지식총서를 선보인 후 지난 7월까지 만 1년 만에 살림지식총서 100종을 내놓았다. 1년에 100종이야 자금력이 있고 부지만 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100종을 각기 다른 주제와 국내 저자로 한정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살림지식총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강훈(34) 기획1팀장은 문고본은 먹고살 만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렴하고 가벼운 문고본은 지식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편하게 지식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이유로 문고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00년 들어 한동안 시장에서 명맥만 유지하던 문고본이 보다 다양한 판형과 가격으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행본에 익숙한 독자들을 다시 불러모으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살림출판사가 문고본인 살림지식총서를 기획한 것은 4년 전이다. 저자와 주제 발굴을 통한 출판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문고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살림출판사는 2000년 강 팀장을 비롯한 현재의 기획팀을 구성하고 야심에 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당시라고 해서 문고본 출판의 하기에 여건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고, 독서인구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책을 가까이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역시 그 방법은 부담 없는 가격과 크기의 문고본이었습니다.”

물론 매년 80종씩 국내필자만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겠다는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다. 기획안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처음 저자섭외에 들어갔고 또 2년이 지나서야 첫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중복청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 정도는 다른 문제에 비하면 애교였다.

“독자들도 그렇지만 책을 내고자 하는 분들도 문고본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320매를 요구하는데 400매면 일반 단행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90쪽 안팎의 책을 내면서 자꾸 원고수정을 요구하는 등 출간일이 늦어지자 원고를 다시 가져가버리는 필자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책이 나오고 나서는 사회의 편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책으로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엄숙주의'였다. 살림지식총서의 경우 원고지 320매로 90쪽 안팎의 분량에 판형은 '가로 12.2×세로 19.2' 포켓사이즈다. 가격 역시 1만 원 정도면 세 권을 살 수 있는 3,300원에 불과하다.

“책을 안 사본다고 하는데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 책값을 올린 출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심하면 한 권 낼 책을 두 권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최근엔 문고본마저도 마치 단행본 같은 외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획자로서 저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좀더 꾸며 단행본으로 냈으면 언론에 주목도 받고,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문신의 역사》(조현설, 020호)는 문신이 사회이슈로 떠오를 당시 문신을 단지 유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역사와 현대적인 의미를 다룬 책으로 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책이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문신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교양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논문과 다른 단행본 작업으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저자를 어렵게 설득해 2개월 만에 작업을 끝내고 8월에 《문신의 역사》를 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반인들은 문고본을 다이제스트나 요약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렇지 않죠. 문고본이 제작과정에서 단행본보다 손이 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용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고본의 매력은 비교적 시장의 눈치를 덜 보면서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출판사의 기획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강훈 팀장은 살림지식총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처음 시작 때와는 달리 저자 확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 살림지식총서 목록에 자신의 책을 넣고 싶어하는 저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저자들이 자연스럽게 기획자로 참여해 자신이 이는 새로운 주제나 저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현재 기획팀이 확보하고 있는 저자만 500명이 넘는다.

“독자들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까지 104명의 필자에 의해서 111종이 출간됐는데 이 중 《미국의 정체성》(김형인, 002호),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박영수, 021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최광식, 056호) 등 3권은 3쇄 이상 찍었고, 2쇄를 찍은 책도 30종이 넘습니다.”

물론 책값도 싸고 부수도 작다보니 단행본에 비할 만큼 수익을 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지나면 판매부수가 주는 일반 단행본에 비해 살림총서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선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상상해 보자. 사람들이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펼쳐 들고 있는 무가지가 문고본이라면... 문고본의 역할은 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책을 읽게 함으로써 한 나라의 지적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데 있다. 그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CEO, 세계적인 철학자, 세계적인 공무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해답이 문고본에 있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